

英才教育研究
Journal of Gifted/Talented Education
2001. Vol. 11. No. 3, pp. 203~220

초등학교 시각예술영재의 판별방법에 관한 연구

이 용 애 (한국교원대학교)
artistically@hanmail.net.

요 약

본 연구는 초등학교 시각예술영재교육을 위한 기초연구의 일환으로 시각예술영재의 판별방법을 이론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시각예술영재의 판별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의 내용은 초등학교 시각예술영재의 판별방법과 관련된 문헌을 고찰한 후, 형식적인 표준화 검사도구를 사용하는 방법, 비형식적인 검사도구를 사용하는 방법, 비검사 측정적인 방법으로 구분하고, 구체적인 특성과 한계를 논의하였으며 끝으로 초등학교 시각예술영재의 판별 방향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I. 서 론

영재교육진흥법이 제정 공포되었고 2002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영재교육진흥법의 시행에는 많은 준비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즉 영재교육 대상자를 어떻게 판별할 것인가. 어떠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인가.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가 등의 문제에 대하여 구체적이고도 실제적인 방안들이 수립되어야 한다. 특히 교육현장에서 준비해야 할 문제 중의 하나가 과연 교육대상자인 영재를 어떻게 판별할 것

인가 하는 ‘영재판별’과 관련된 문제이다.

초등학교 수준에서 판별은 이미 발현된 영재성을 단순히 확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보이지 않는 심리적 구인으로서의 영재성을 탐색하고 발견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판별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일 필요가 있으며 기능적이고 명확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영재가 둔재로 범재가 영재로 오인되는 오류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시각예술영재의 판별은 애매하고 복잡하며 어려운 일이다(Pendarvis, Howley, & Howley, 1990). 그러므로 판별에서 오류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최근에는 판별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줄이기 위하여 시각예술영재성의 다중요인(multiple factor) 준거체제에 기초한 다원적 판별방법이 지지되고 있다. 즉 다중요인준거체제의 다원적 판별방법은 시각예술영재성을 복합적인 심리적 구성요인의 개념으로 가정하고 구성요인 개개에 대하여 다양한 판별방법을 적용함으로써 단일요소에 기초한 판별방법에서 야기되는 한계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시각예술영재를 판별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각각의 방법에 대한 연구와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시각예술영재교육을 위한 준비차원의 기초연구로서 기존에 사용된 시각예술영재 판별방법에 대하여 고찰함으로써 초등학교 시각예술영재의 판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II. 시각예술영재의 판별방법

판별(identification)은 프로그램에 들어갈 수 있는 학생을 결정하기 위하여 자격을 부여하는 영재교육의 과정 중 하나이다. 이러한 판별과정의 자료 수집은 영재교육 프로그램이 추구하는 목적과 일치하는 학생을 타당성 있게 판별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판별방법에 대한 이해와 논의가 필요하다.

본 장에서는 시각예술영재와 관련된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판별방법을 고찰하여 형식적인 표준화 검사도구 사용 방법, 비형식적인 검사도구 사용 방법, 비검사 측정 방법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특징을 살펴보고 사용에 따른 한계와 장점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1. 형식적인 표준화 검사도구 사용 방법

형식적인 표준화 검사도구의 사용방법은 형식적인 방법과 표준화 검사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1) 형식적 검사방법

형식적인 검사방법은 일정 수준의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된 검사도구를 사용하는 것이다. 창의성 검사, 성취도 검사, 지능 검사 등이 이에 포함된다. 첫째, 창의성 검사는 표준화된 창의성 검사도구를 사용한다. 그러나 창의성 검사가 영재성을 측정하는 형식적인 검사도구로서 타당한 것인가에 대하여 충분한 입증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단점과 창의성 검사가 학생들의 미적표현 기능을 측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즉 창의성 검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학생들이 반드시 시각예술영재는 아닐 수도 있다.

창의성을 측정할 수 있는 표준화 검사도구로는 Guilford(1973)의 '아동을 위한 창의성 검사(Guilford Creativity Tests for Children)'와 Torrance(1974)의 '창의적 사고 검사(Torrance Tests of Creative Thinking)', Wallach 과 Kogan(1965)의 '아동용 창의성 검사(Modes of Thinking in Young Children)' 등이 있다. Clark과 Zimmerman(1983)의 연구에 의하면 49개의 시각예술영재 프로그램 중 8개가 시각예술영재성의 측정에 창의성 검사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공교육에서 시각예술능력 검사로 창의성 검사를 별도로 사용하는 곳은 발견하지 못했다.

둘째, 성취도 검사(achievement test)는 그 분야의 성취결과를 가지고 영재를 판별하는 방법이다.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학업성취도 검사이다. 표준화된 학업성취도 검사는 해당 영역의 성적을 다양하게 비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표준화 검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경제적인 부담이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 표준화 성취도 검사에서 상위 몇 %를 영재라고 규정하고 그에 해당하는 학생을 영재로 판별한다. 보다 정확한 영재판별을 위해서는 상위 몇 %에 속하는 아동을 1차적으로 선발해서 이들을 대상으로 영재성 검사를 실시하는 복합적 방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타당성도 더 높일 수 있다. 미국의 시각예술영재판별 프로그램 49개 중 6개의 프로그램이 성취도 검사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lark & Zimmerman, 1984). 그러나 학업성취도 수준이 곧 시각예술영역의 학업성취는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다. 또한 시각예술 영역을 표준화된 학업성취도 검사로 측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셋째, 지능 검사는 지능이 높은 아동은 시각예술 능력도 평균이상이라는 가정 하에 지능 검사의 결과에 따라 일정 비율에 속하는 아동을 시각예술 영재로 판별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지능 검사만을 단일 판별방법으로 사용하는 비율은 극히 적으며, 대부분 판별 단계 초기에 집단으로 지능검사를 실시하거나, 중간 단계에서 개인별 지능 검사를 실시하여 하나의 준거로 사용한다. 특히 시각예술능력 검사방법으로 지능검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이 있다. Pegnato와 Birch(1975)는 지능검사가 영재성을 어느 정도나 판별하는가에 대한 정확성의 정도를 제시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지능검사 점수가 120이상인 학생을 영재로 판별하였을 때 71.4%, 130이상으로 기준을 하였을 때 29.1%의 정확성이 있다고 한다. 이는 지능검사만으로 영재를 판별했을 때의 오류를 지적하고 있다. 특히 시각예술 영역의 영재를 지능검사 점수로 판별하는 경우 시각예술 분야의 능력과 적성 등을 측정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Lowenfeld 와 Brittain(1964)은 지능검사가 시각예술영재성의 징후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Dehaan과 Havighurst(1961)는 음악이나 시각예술 등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이는 아동 중에는 평균이나 그 이하의 지능을 가진 아동들도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많은 시각예술교육가(Klar & Winslow, 1933; Tiebout & Meier, 1936; Ziegfeld, 1961; Gaitskell & Hurwitz, 1970)들은 지능과 시각예술 표현력간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지능이 높은 아동들이 시각예술 표현력이 우수하며, 시각예술 표현력이 우수한 아동들은 대부분 지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ritz, 1930; Schubert, 1973; Vernon, Adamson & Vernon, 1977). 그러므로 지능과 시각예술능력간의 상관에 대하여 상반되는 주장이 전개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높은 지능과 시각예술 능력은 상호의존적이라고 본다. 따라서 높은 지능의 아동이 모두 뛰어난 시각예술 영재성을 소유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뛰어난 시각예술능력을 가진 상당 수의 아동들이 평균 이상의 지능을 가지고 있다는 연구의 결과(Manuel, 1919; Hollingworth 1926; Schubert 1973; Luca & Allen 1974)를 토대로 평균 이상의 높은 지능은 뛰어난 시각예술 표현활동을 하기 위한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필요조건이라는 것이다.

2) 표준화 검사도구

표준화 검사란 어떤 행동을 표집하는 경우에 객관화되고 표준화된 절차에 의해서 측정함으로써 행동의 전체 집단을 미루어 짐작하고 그것을 기초로 하여 두 사람 이상의 행동을 비교하는 체계적인 절차이다. 시각예술영재성의 판별에서 사용되는 표준화 검사도구는 1900년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연구의 필요성에 따

라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으나 오늘날 신뢰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검사도구는 매우 미흡하다. 이는 개발된 많은 검사도구들이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조작적인 정의에 근거하여 개발되었기 때문이다.

시각예술영재성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표준화검사도구로는 1900년대에서 1940년대에 이루어진 Whitford(1919)의 Whitford Appreciation Test, Goodenough(1924)의 Draw-A-Man Test, Goodenough(1926)의 Goodenough Drawing Scales, Meier, Meier-Seashore Art Judgment Test, Knauber(1932)의 Knauber Art Vocabulary Test, Horn(1935)의 Horn Art Aptitude Inventory 등을 비롯해 60~70년대 영재교육 소홀 속에서도 Kough와 DeHaan(1955)의 'The work-sample technique'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시각예술영재를 판별하기 위해 표준화 검사도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과연 시각예술에서 조기 영재판별이 가능한 것인가(Waddell, 1966). 표준화된 시각예술 검사 도구가 가장 잘 개발된 것으로 그래서 타당한 것으로 인정된 도구들도 그것이 제작되어 발행된 직후 곧 낙후된 도구로 전락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과연 시각예술에 있어서 표준화된 도구라고 하는 것을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가(Brittain, 1961). 비구조화된 학문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시각예술에서 객관적인 측정이 가능한 것인가 등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Zeigfeld, 1961).

따라서 이 후의 연구자들은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다양한 검사도구를 개발하였다. 대표적인 도구로는 Wilson(1966)의 Wilson Aspective Perception Test, Eisner(1967)의 Drawing Characteristics Scale, Clark(1970)의 Visual Concept Formation Test, Visual Concept Generalization Test 등이 있다.

이러한 시각예술영재성의 판별을 위한 표준화 도구들 중에서 Marland(1972) 보고서에 포함된 시각 및 공연예술 영재성의 판별에 사용할 수 있는 도구로 Rubenzer(1979)가 제시하고 있는 검사 도구는 Horn의 시각예술 적성 검사와 Meier의 시각예술능력 검사이며, A Center Global Futures(1981)에서 시각예술영재성의 측정에 사용할 수 있는 검사도구로 소개하고 있는 것은 형식적인 검사도구로는 Rubenzer가 제시하고 있는 두 개의 검사도구 외에 Graves의 디자인 판단 검사(Graves Design Judgment Test)가 하나 더 추가되었을 뿐이다. Khatena(1982)도 2개의 표준화된 창의성 검사로 Guilford(1973)와 Torrance(1974)의 창의성 검사 도구와 3개의 표준화된 시각예술 검사도구로 Horn(1953), Meier(1963)의 시각예술능력 검사도구와 Knauber(1935)의 'Knauber Art Ability Test' 등을 들고 있다. 이상의 도구들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 시각예술영재를 판별하는데 문제와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도구들 중에서 그래도 시각예술영

재성을 판별하기 위한 형식적인 표준화 검사도구로서 신뢰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 것들이다(Clark & Zimmerman, 1984).

2. 비형식적 검사도구 사용 방법

비형식적 검사방법은 비표준화된 검사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 검사방법은 시각예술영재의 판별방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된다(Clark & Zimmerman, 1984). 포트폴리오 평가, 비표준화된 그림검사, 구조화된 추천, 기술식 체크리스트 방법 등이 이에 해당된다. 대부분의 시각예술영재를 위한 프로그램들은 비형식적이 검사방법 중 하나만을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고 2-3개 이상의 방법을 결합해서 사용한다(Clark & Zimmerman, 1992).

1) 포트폴리오 평가방법

포트폴리오 평가(portfolio review)는 개개인의 진보 과정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방법이다. 그래서 시각예술영재를 위한 판별방법으로 권장되고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포트폴리오 평가는 사실상 잠재적인 재능을 판별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원자에 대해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결과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잠재적인 가능성을 지닌 학생은 간과될 수 있다. 따라서 잠재적인 가능성을 탐색하고 발견해야 하는 초등학교 수준에서의 사용보다는 중학교 수준이상에서 주로 사용한다. 그러나 이 방법은 우수한 학생은 확연하게 구분이 되므로 우수한 학생을 판별하는데는 적절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Chetelat, 1981).

2) 구조화된 지명법

구조화된 지명(structured nomination)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행동 점검(behavior checklist) 방법이다. 일반적인 지명법과 다른점은 지명의 준거를 제시하고 그 준거의 사용에 관하여 지명자에게 충분한 연수를 실시한 후에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Terman(1925), Pagnato와 Birch(1959), Jacobs(1971), Gowan과 Demos(1964), Gallagher(1975), Khatena(1982) 등의 연구에서 준거없이 교사의 지명을 받아 연구한 결과 신뢰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지명법을 위해서는 구조화된 지명 형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교사들의 사전 연수가 이루어져야 한다.

구조화된 지명의 내용은 관찰할 수 있는 행동 목록이 준비되어야 하고, 특별한 범주에 있어서 이해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 사용자들은 특별한 행동의 빈도와 강도를 위한 개개의 특성을 판별하는 특별한 행동의 출현을 평가한다. 이러한 체크리스트의 항목은 분명하게 정의된 용어를 사용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표준화된 행동목록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이를 기록하고 해석할 수 있는 목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3) 비표준화된 그림 검사법

비표준화된 그림 검사(non-standardized drawing)는 특별한 시각예술영재 프로그램 위해 사용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Lincoln과 Massachusetts의 Decordova Museum에서 사용한 David Baker(Lazarus, 1982)의 시각적 이야기 검사방법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 검사는 아동들에게 일련의 그림을 보여주고 그림의 내용을 이야기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검사는 아동들의 시각적인 기억력을 측정하고자 할 때 사용된다. 그 외에 'Clark-Gareri 그림 도구'(Clark & Zimmerman, 1987)는 Iowa 대학의 여름 시각예술 학교에 참가할 아동을 판별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이 검사는 한 시간 30분 동안에 세 개의 주제를 주고 그림을 그리도록 한 후, 그 결과를 평가한다. 채점은 시각예술 작품에 나타난 다양한 요인들을 채점한다. 즉 구성, 색상, 표현기술 등이다.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비표준화된 그림 검사의 경우 용어가 불명료하다. 즉 '적절한 색상의 사용인가' 등이 제시된 채점 기준이다. 그러므로 평가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는 여지가 많고, 대부분이 지역적으로 프로그램의 목적에 맞추어 개발되었기 때문에 조건이 다른 지역에서 실시하였을 때 신뢰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Winner & Martino, 1993).

4) 기술식 체크리스트법

기술식 체크리스트(descriptive checklist) 검사는 구조화된 지명법에서 사용하는 체크리스트 방법과는 약간 다르다. 특별한 범주 안에서 시각예술영재성을 예언할 수 있는 능력과 관찰 가능한 행동의 목록을 미리 준비하고 그러한 행동이 나타나는 비율, 특별한 행동의 출현 등을 체크하는 방법은 동일하다. 그러나 기술식 체크리스트는 항목을 포괄적으로 정해 놓고 그에 나타나는 구체적인 행동을 관찰자가 기술하는 방식이다. 일종의 수행 평가의 서술식에 해당된다. 따라서 사용하는 기관이나 개인에 따라 개별적이고 일반적인 정의로 잘 정의되어 있지 않으며, 교사들에게 너무나 무리한 시간을 요구한다. 이 방법은 교사들에게 업무의 부담을 느끼도록 한다는 지적이다(Clark & Zimmerman, 1984). 따라서 검사방법은 기술된 언어의

명료화와 사용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 사용방법을 용이하게 하고 용어의 정의를 분명하게 하며, 신뢰성을 높이는 활동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한다.

3. 비검사 측정(non-test measures)방법

비검사 측정은 직접적인 검사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판별방법이다. 따라서 객관성이나 신뢰성은 많이 떨어지지만 다양한 수준의 준거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검사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부모, 담임교사, 동료, 자기, 시각예술교사 등의 지명법, 면접법, 기존의 시각예술 영재교육 과정의 경험 유무, 선착순, 대회 실적 등이 있다.

1) 지명법

지명법은 영재를 위한 모든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판별 절차로 종류가 다양하다. 비구조화된 지명법은 지명자에게 학생을 추천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다양한 사람(부모, 동료, 교사, 상담자)이 학생과 그의 작품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지명법은 지명자가 언급한 정보에 제한적이라는 단점이 있다. 지명자의 성향 혹은 지명을 위한 기준의 결여 등은 불필요하거나 부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지명법 중에서 자기 지명법과 동료 지명법은 시각예술 영재의 지명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Clark & Zimmerman, 1983).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그들의 학급, 교외활동, 특별활동 등에서 다른 학생들의 재능과 능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시각예술 영재는 스스로의 활동에 비판적이고 자신의 욕구, 관심, 재능, 능력 등에 대해 다른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학급 담임교사의 지명방법은 특히 초등학교 수준에서 많이 사용된다. 초등학교 학생들은 많은 시간을 담임교사와 같이 생활하기 때문에 교사에 의해 영재들의 탁월한 능력을 추천받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의 시각예술영재 판별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도 교사의 지명법이다. 교사가 시각예술 영재를 지명하기 위해서는 우선 학급 아동을 대상으로 목록을 작성하고 개인별 프로파일(profile)을 작성해야 한다(Platow, 1984, 김정휘, 1995 재인용).

2) 면접법

면접(interview)은 비구조화된 개방적 양식으로 지원자와 면접자 모두에게 아이디어와 정보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므로 면접은 응시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지원자에게 제공하는데 유용한 방법이다. 그러나 면접법은 고비용이고 시간적 소비가 많다. 따라서 학교에서 면접법을 사용할 때는 최종 판별과정에서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면접시에는 최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친숙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차별적인 질문을 하거나 관심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특히 입학 허가나 탈락을 암시하는 어떤 말을 해서는 안된다. 질문은 미리 정해진 형식적인 질문과 그것에서 다소 벗어난 질문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면접시 사용하는 질문은 주로 시각예술의 지식과 기능에 관한 질문을 하고 척도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또한 시각예술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질문을 하고 척도에 따라 평가 기록한다.

이상으로 시각예술영재의 판별방법을 고찰하였다. 그러나 현재 사용되고 있는 형식적 방법은 정확하게 시각예술 능력을 측정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표준화된 검사도구의 사용방법은 신뢰도와 타당도가 낮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체크리스트법, 전문가에 의한 학생의 작품 평가 방법, 학생 자신의 추천 방법 등은 객관성과 신뢰성의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포트폴리오 평가방법은 비능률적이고, 너무 비용이 많이 들며, 신뢰도와 타당도를 설명하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다(Stalker, 1981). 또한 교사 지명법은 영재의 행동에 관한 불충분한 지식과 교사 주관성(subjectivity) 때문에 부분적으로 단점을 가지고 있다(Gallagher & Rogge, 1966; Hildreth, 1966; Torrance, 1969; Gear, 1976).

특히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각예술영재의 판별방법은 간단한 체크리스트와 전문가에 의한 학생의 작품 평가, 그리고 학생 자신의 추천, 교사의 지명 등을 사용하고 있다(전경원, 2000). 미국의 49개 시각예술영재 프로그램에서 사용하고 있는 18가지 이상의 방법과(Clark & Zimmerman, 1984) 비교할 때, 우리 나라의 시각예술영재 판별방법은 비형식적인 것과 비검사법에 치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적절성과 효율성이 낮으며 판별의 오류를 범할 확률이 높고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판별방법이 적용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Ⅲ. 초등학교 시각예술영재의 판별 방향

초등학교 시각예술영재의 판별방법을 선택하고 그에 따라 시각예술영재를 판별하는 과정을 돕기 위하여 이상에서 고찰한 시각예술영재의 판별방법으로부터 추출한 시사점을 토대로 시각예술영재의 판별에 대하여 몇 가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초등학교 시각예술영재의 판별은 다중요인 준거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Davis & Rimm, 1998; Howley & Pendarvis, 1986; Clark & Zimmerman, 1984; Sternberg(1986). Sternberg(1986)는 영재성은 다양한 능력을 모두 측정할 수 있는 검사도구에 의해 측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즉 영재성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구성요인을 종합적이고 실제적으로 판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초등학교 시각예술영재 판별과 관련해서 흔히 교사들은 시각예술영재는 교실에서 쉽게 인식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학급에서 잘 순응하고 학교교사가 기대하는 방향과 일치하는 학생들의 행동이 종종 재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결국 시각예술영재를 판별할 수 있는 준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교사들에게 학교에 순응하는 아동은 재능을 가지고 있는 아동으로 인식되고, 불순종적인 아동들은 재능이 없을뿐만 아니라 문제아동으로 인식하게 한다. Gallagher(1975)는 실제로 시각예술영재는 교사의 기대 수행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교사의 추천이나 전문가의 지명만으로 영재성을 판별하는 것은 신뢰성이 낮을 수 있으므로 시각예술영재의 판별은 시각예술영재성의 구성요인을 모두 포함하는 다중요인 준거체제가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초등학교 시각예술영재의 판별은 표준화된 검사도구와 비형식적인 방법이 병행되어야 한다. 그 동안 시각예술영재의 판별 방법은 비형식적인 방법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았다. 그러나 공교육에서의 영재교육은 다수의 인원을 대상으로 균등하게 영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신뢰하고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 표준화된 검사도구의 사용이 병행되어야 한다.

앞으로 영재교육진흥법의 시행에 따라 2002년부터 초등학교를 비롯한 중·고등학교에서 시각예술 영재교육을 위한 판별을 실시해야 하는 과제가 교육현장에 부여되었다. 초등학교 시각예술 영역은 비구조적인 학문이기 때문에 비형식적인 방법과 비검사법을 사용해서 영재를 판별해야 한다고 하는 주장은 계속적으로 선발과 관련된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초등학교 시각예술영

재의 판별방법은 형식적 검사도구를 사용한 방법과 비형식적인 검사방법 그리고 비측정적인 방법 등이 균형있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초등학교 시각예술영재의 판별은 다원적인 방법이 사용될 필요가 있다 (Fox, 1976; Feldhusen & Jarwan, 1993). 영재를 판별하는 방법은 일회적인 방법과 다단계를 통한 다원적 방법이 있다. 잠재적인 가능성을 탐색하고 발견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초등학교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조기의 판별방법은 일회적인 방법보다는 다단계적인 다원적 방법이 더 바람직하다. Fox(1976)는 3단계의 영재 판별 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제 1단계는 선발단계로 집단 지능검사와 지명, 관찰법 등을 사용하여 영재성을 판별한다. 제 2단계는 판별의 단계로 전문가들의 심층적인 평가활동이 이루어진다. 1단계에서 선발된 대상에게 개인 지능검사, 창의성 검사, 적성검사, 성취검사 등을 영역에 맞도록 실시한다. 제 3단계는 배치의 단계로 1, 2 단계에서 선발된 대상을 그들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에 배치하고 학습과정과 결과 등을 관찰한다. Renzulli(1996)는 2단계의 영재판별 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제 1단계는 전체 학생의 15-20%를 선정한다. 방법은 표준화 검사를 통해 반을 선발하고 나머지는 각종 지명법에 의해 선발한다. 제 2단계는 심화학습 활동에 참여한 후 학생 스스로 영재성을 판정한다. 최종적으로 전체 학생의 5%가 최종 심화학습에 참여한다.

초등학교 시각예술영재성을 판별하기 위한 다단계적인 다원적 방법은 크게 3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초기단계에서는 각종 지명법, 집단검사 방법 등 폭넓은 대상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한다. 중간단계에서는 초기단계에서 선발된 아동을 대상으로 구조적인 검사방법을 적용하여 소수를 선발한다. 최종 단계에서는 영재교육 프로그램이 목적으로 하는 방향과 일치하는 대상을 판별한다. 전문가의 심층 면담법, 특수분야의 심층 체크리스트 법 등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방법을 사용한다.

넷째, 초등학교 시각예술영재의 판별은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영재성은 발달적인 측면(강충열, 1997)이 있기 때문에 성장하는 과정에서 가변적이다. Csikszentmihalyi & Robinson(1986)은 사회심리적인 영향에 따라 영재성은 변화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 시점에서 영재라고 판별된 아동이 영원히 영재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영재로 판별되지 않은 아동이 영원히 영재성을 발현하지 않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초등학교 시각예술영재의 판별은 일회적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과정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시로 영재판별의 기회가 학생들에게 주어져야 한다.

다섯째, 초등학교 시각예술영재의 판별은 아동의 미적발달 수준에 따라 구체적

인 절차와 방법이 달라야 한다. 교육은 아동의 발달을 도와주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교육의 목적과 방법은 아동의 발달로부터 제공받아야 한다. 영재교육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영재의 특성이 다른 일반 아동의 발달적 특성과 비교해서 종류(kind)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정도(degree)면에서 차이라고 볼 때, 영재들도 일반 아동들과 동일한 발달적 순서를 경험한다. 다만 그 출현시기와 진보의 정도가 빠르다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의 방법과 절차가 다른 발달과정에 있는 아동에게 모두 적합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정확한 초등학교 시각예술영재의 판별을 위해서는 각 연령의 미적발달단계를 준거로 이루어져야 한다.

여섯째, 초등학교 시각예술영재의 판별은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전에 프로그램의 크기, 목적 특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Clark & Zimmerman, 1983). 예를 들어 컴퓨터 그래픽(computer graphics) 프로그램에 입학할 위한 기준은 회화 프로그램을 위한 입학조건과는 달라야 하며 1학년 아동의 판별 기준과 6학년 아동의 판별 기준은 달라야 한다. 또한 학교 단위의 영재교육 프로그램과 소수 집단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의 판별방법은 달라야 한다. 즉 입시를 목적으로 하는 판별과 심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대상을 판별하는 방법은 달라야 한다.

일곱째, 초등학교 시각예술영재의 판별은 다양한 자료의 수집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즉 시각예술영재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매우 확산적인 기준을 몇 가지 사용해야 한다(Koppitz, 1968; Barron, 1972; Getzels, & Csikszentmihalyi, 1976; Stalker, 1981; Saunders, 1982; Van Tassel-Baska, 1984). 예를 들어 시각예술 영재 교육에 참여할 학생들의 흥미도/요구도(Feldman, 1980; Clark & Zimmerman, 1984), 미적 인식(Meier, 1942), 지각 기능(Grossman, 1970), 시각적 현상에 대한 복잡성(Goodman, 1977), 인지적인 복잡성(Stalker, 1981), 포트폴리오의 평가(Saunders, 1982), 분야에서의 전문가, 부모, 교사, 동료, 자신에 의한 지명법(Oregon State Department of Education, 1979) 등으로부터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고 그를 기초로 판별해야 한다.

IV. 결 론

초등학교 아동의 시각예술 표현물은 그들의 발달을 반영하는 결과물이며, 표현 과정은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아동기에 시각예

술 표현활동은 누구나 수행한다. 그러나 동일한 연령의 아동이 수행하는 시각예술 표현의 정도는 차이가 있다. 즉 미적발달 단계가 도식기(Lowenfeld, 1964)에 있는 아동(7-9세)은 일반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것은 생략하고, 중요한 것은 과장하기 위해 사용하던 표준 도식으로부터 이탈하여 좀더 일반적인 상징적 표현방식을 사용하고자 한다. 그러나 일부 아동은 의사실기(12-14세)의 미적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완벽한 원근 및 중첩의 표현 등을 사용한다. 이렇듯 시각예술 영역에서 탁월한 능력을 나타내고 있는 아동을 시각예술영재라고 정의할 때, 그들에게는 그들의 능력과 가능성에 적절한 교육적 기회와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각예술영재를 정확하게 판별하는 과제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초등학교 시각예술영재의 판별과 관련된 기초연구의 일환으로 문헌에서 소개하고 있는 판별방법을 고찰함으로써 시각예술영재를 판별하는데 적용할 수 있는 판별방법의 가능성과 한계를 논의하고 이로부터 시각예술영재의 판별방향에 시사하는 바를 추출하여 제시하였다. 초등학교 수준에서 시각예술영재를 판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조심스러운 일이다. 또한 그들의 판별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유일무이(唯一無二)하게 완전한 방법을 제시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하지만 조기에 시각예술영재성을 판별하여 그에 적절한 교육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따라서 초등학교 시각예술영재의 판별방향은 구체적이고 개별적이며, 포괄적일 필요가 제기되지만, 무엇보다도 시각예술영재성을 발견하고 탐색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시각예술영재성의 구성요인을 균형있게 종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다중요인준거체제에 기초한 다원적 판별방법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영재를 판별한다고 하는 것은 한 아동이 높은 영재성을 지니고 있는가 아닌가를 판별하는 일이다. 그러나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인간의 심리적 구성요인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 변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엄밀하게 우리가 사용하는 영재판별은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영재교육 프로그램에 참가 할', '영재교육의 목적에 적합한' 의 의미이다. 즉 특수한 목적이나 프로그램에 의한 영재교육을 위해서 그 대상을 인식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시각예술영재의 판별은 다양한 방법이 사용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음을 논의하였지만 이러한 방법을 모두 사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완전한 하나의 방법을 제시할 수도 없다. 시각예술영재교육 프로그램이 추구하는 목적과 실시되는 환경에 따라 적합한 대상을 판별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을 선택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충열(1997). 초등학교에서의 영재교육의 실제, *영재교육연구* 7(2), 93~149.
- 김정휘(1998). *영재학생 식별 편람*, 서울: 원미사.
- 전경원(2000). *한국의 새천년을 위한 영재교육학*, 서울: 학문사.
- Barron, E. (1972). *Artists in the making*, New York: Seminar Press.
- Brittain, W. L. (1961). Creative art. In L. A. Fliegler(Ed.). *Curriculum planning for the gifte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Chetlat, F. (1981). Visual arts education for the gifted elementary level art student. *Gifted Child Quarterly*, 25(4), 154~158.
- Csikszentmihalyi, M., & Robinson, R. E. (1986). Culture, time, and the development of talent. In R. J. Sternberg and J. E. Davidson (Eds.). *Conceptualization of giftedness* (pp. 264-284).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lark, G., & Zimmerman, E. (1983). Identification artistically talented students. *School Arts*, 83(3), 26~31.
- Clark, G., & Zimmerman, E. (1984). *Educating artistically talented students*. Syracuse, NY: Syracuse University Press.
- Clark, G., & Zimmerman, E. (1987). *Resources for educating artistically talented students*, Syracuse, New York: Syracuse University Press.
- Clark, G. A., & Zimmerman, E. (1992). *Issues and Practices Related to Identification of Gifted and Talented Students in the Visual Arts*, Indiana University, Bloomington, Indiana.
- Davis, G. A., & Rimm, S. B. (1998). *Education of the gifted and talented*, Kendall/Hunt Publishing Company.
- Dehaan, R. F., & Havighurst, R. J. (1961). *Educating gifted childre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Eisner, E. W. (1967). *The development of drawing characteristics of culturally advantaged and culturally disadvantaged children*, Project 3086, Washington, DC: Office of Education, Bureau of Research.
- Feldman, D. H. (1980). *Beyond universals in cognitive development*, Non-wood, NJ: Ablex.
- Fox, L. H. (1976). Identification and program planning models and method. In

- P. Keating (Ed.). *Intellectual talent Research and Development*, The John Hopkins University Press.
- Fritz, H. E. (1930). A search for and conservation of the gifted. *Bulletin of High points* 12(8), 19~25.
- Gagné, F. (1993). Conceptions of Giftedness. In K. Heller, H. Passow, F. Monks (Eds.). *International handbook of research and development of giftedness and talent*. Oxford: Pergamon Press.
- Gagné, F. (1991). Toward a differentiated Model of Gifted and Talent, In N. Colangelo, & G. A. Davis (Eds.). *Handbook of Gifted Education*(pp. 65-80), Boston: Allyn and Bacon.
- Gallagher, J. (1975). *Teaching the gifted child (2nd ed.)*. Boston, MA: Allyn & Bacon.
- Getzels, J., & Csikszentmihalyi, M. (1976). *The creative vision: A longitudinal study of problem finding in art*.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 Goodenough, F. (1924). *The intellectual factor in children's drawing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tanford University.
- Goodenough, F. L. (1926). *Measurement of intelligence by drawings*. Chicago: World Book Company.
- Goodnow, J. (1977). *Children Drawing*,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곽덕영 역(1995). *어린이들의 그림그리기*, 서울 : 도서출판사 학문사.
- Hildreth, G. (1941). *The child mind in evolution: A Study of developmental sequences in drawing*, New York: Kings Crown Press.
- Hildreth, G. H. (1966). *Introduction to the gifted*. New York: McGraw-Hill.
- Hollingworth, L. S. (1926). *Gifted children: Their nature and nurture*. New York: Macmillan.
- Horn, C. C. (1953). *The Horn art aptitude inventory*. Chicaago: Stoelting.
- Howley, A., Howley, C., & Pendarvis, E. D. (1986). *Teaching Gifted Children: Principles and Strategies*, 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 Khatena, J. (1982). *Educational psychology of the gifted*. New York: John Wiley.
- Klar, W. H., & Winslow, L. L. (1933). *Art education in principle and practice*. Springfield, MA: C. Valentine Kirby.
- Knauber, A. (1932, 1935). *Knauber art ability test and Knauber art vocabulary test*(published by the author).
- Koppitz, E. M. (1968). Psychological evaluation of children's human figure

- drawings, *Journal of Experimental Education*, 9(4), 332-360.
- Kough, Jr., & DeHaan, R. (1955). *Teacher' guidance handbook, elementary school edition Volume I: Identifying children with special needs*. Chicago: Science Research Associates.
- Lazarus, E. (1982). *Project Art Band: A program for visually gifted children*, Lincoln, MA: DeCordova Museum.
- Lowenfeld, V., & Brittain, W. L. (1964). *Creative and mental growth*, New York: Macmillan.
- Luca, M., & Allen, B. (1974). *Teaching gifted children art in grades one through three*, Sacramento, CA: California State Department of Education.
- Manuel, H. T. (1919). Talent in drawing: An experimental study of the use of tests to discover special ability. *School and Home Education Monograph No. 3*. Bloomington, IL: Public School Publishing Co.
- Marland, S. P. (1972). *Education of the gifted and talented. Vol. 1*. Report to the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 by U. S. Commissioner of Education. Washington, DC: USGPO, 1972.
- Meier, N. C. (1929, 1942, 1963). *Meier art tests*. Iowa City, IA: State University of Iowa, Bureau of Educational Research and Service.
- Oregon State Department of Education, (1979). *Identifying talented and gifted students*, Portland, OR: Northwest Regional Educational Laboratory.
- Pegnato, C. W., & Birch, J. W. (1959). Location gifted children in junior high schools: A comparison of method, *Exceptional children* 25, 300-304.
- Pendarvis, E. D., Howley, A. A., & Howley, C. B. (1990). *The abilities of Gifted children*, New Jersey: Prentice Hall, Inc.
- Rubenzler, R. (1979). Identification and evaluation procedures for gifted and talented programs, *Gifted Child Quarterly*, 23(3), 313-316.
- Saunders, R. J. (1982). Screening and identifying the talented in art. *Roeper Review*, 4(3), 7~10.
- Schubert, D. S. P. (1973). Intelligence as necessary but not sufficient for creativity.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22, 45-47.
- Stalker, M. Z. (1981). Identification of the Gifted in Art, *Studies in Art Education* 22(2), 49~56.
- Sternberg, R. J. (1986). A triarchic theory of intellectual giftedness. In R. J. Sternberg & J. E. Davidson (Eds.). *Conceptions of giftedness*,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erman, L. M. (1925). *Genetic students of genius vol 1*, Stanford University Press.
- Tiebout, C., & Meier, N. C. (1936). Artistic ability and general intelligence. *Psychological Monographs*, 48(1), 95-125.
- Torrance, E. P. (1974). *Torrance tests of creative thinking: Norms-technical manual*. Lexington, MA: Personnel Press.
- Van Tassel-Baska, J. (1984). The talent search as an identification model, *Gifted Child Quarterly*, 28(4), 172~176.
- Vernon, P. E., Adamson, G., & Vernon, D. (1977). *The psychology and education of gifted children*. Boulder, CO: Viewpoint Press.
- Waddell, J. H. (1960). Way of art for the gifted child, *Studies in Art Education*, 2(1), 66-70.
- Wallach, M., & Kogan, N. (1965). *Modes of thinking in young children*. New York: Holt.
- Whitford, W. G. (1919a). Empirical study of pupil-ability in public-school art courses-Part 1. *The Elementary School Journal*, 10(1), 33~46.
- Whitford, W. G. (1919b). Empirical study of pupil-ability in public-school art courses-Part II. *The Elementary School Journal*, 10(2), 95~105.
- Wilson, B., Hurwitz, A., & Wilson, M. (1987). *Teaching drawing from art*, Worcester, MA: Davis Publications.
- Winner, E., & Martino, G. (1993). Giftedness in the Visual Arts and Music, In K. A. Heller, F. J. Mönks, & A. H. Passow(Eds.). *International Handbook of Research and Development of Giftedness and Talent*(pp. 253-281), Oxford: Pergamon Press Ltd.
- Ziegfeld, E. (Ed.). (1961). *Art for the academically talented student in the secondary school*. Washington, DC: NEA/NAEA.

ABSTRACT

A Study on the Identification Methods for Artistically Gifted Children in the Elementary School

Lee, Yong Ae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the direction for identification of artistically gifted children by considering the methods of it as a part of the basic study for artistically gifted children education.

The result of study on the identification of artistically gifted children in literature, the identification methods are classified into the formal standardized art test, the informal test, and non-test measure. And they are considered and discussed laying importance on their characteristics and problems.